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76호 [루게 제24954호] 주제104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웅장 화려하게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의 척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훌륭히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었다.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김양건 동지, 리재일 동지, 리병철 동지, 김여정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강기섭 동지, 림광웅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설하도록 무려 150여건의 형성안도 거듭 지도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보내주시였으며 여러차례나 건설장을 찾으시어 항공역사를 최상의 수준으로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어들어 결사관철하고야마는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현대적



인 건축물로 훌륭히 완공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용기를 타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전경을 공중에서 부감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을 깨끗하고 규모있게 잘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으로 꾸러진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 걸맞게 평양국제비행장 지구를 완전히 일신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당에서 구상하고 있는 평양국제비행장 지구개발총계획안대로 순안구역 읍지구와 태암농장지구를 비롯한 비행장주변의 면모를 수도의 관문답게 훌륭히 개건정리하며 앞으로 평양국제비행장이 국제항공역으로서 교통운수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국제비행장으로부터

평양시 중심구역까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복도식탑승다리로 내리시어 새로 건설한 항공역사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항공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현대적미감과 민족적 특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시공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행장주변을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립하였으며 항공역사 정면과 후면처리도 정말로 잘 하였다고 기뻐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출발대기홀, 출발수속홀, 도착수속홀, 도착현관

홀, 봉사홀, 귀빈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 및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축에서 생명인 주체성,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면서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항공역사를 잘 건설했다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멋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었다.

여러 홀들의 공간처리를 잘하였으며 상업, 금융, 정보, 의료, 편의봉사에 필요한 각종 봉사망들을 편리하게 배치했다고 하시었다.

여러 상점들과 기념품매대들에 질 좋은 우리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은것도 좋고 민족료리전문식당, 아시아료리전문식당, 유럽료리전문식당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특성과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특색있게 시공했다고 말씀하시었다.

항공역사를 돌아볼수록 우리 사람들의 식견과 안목이 세계적수준에 올라섰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각종 도안과 장식, 상품진렬에서도 개선을 가져왔다고 하시었다.

지하주차장과 고가도로는 볼수록 멋있다고, 택시를 비롯한 운수수단들까지 충분히 마련해놓았다고 하시면서 국제비행장으로서의 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4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돌아보면서 내부시공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지적해주고 30여건의 개작형성안을 비준하여주었는데 짧은 기간에 건설을 끝냈다고 하시면서 구

석구석 손색이 없고 완전무결하다고 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여러차례나 평양국제비행장을 잘 꾸릴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드디어 관철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처럼 훌륭히 건설된 항공역사에 위대한 장군님을 한번도 모시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가슴속에 갈마드는 가책을 금할수 없다고, 장군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비행장을 이렇듯 번듯하게 일떠세운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장군님 웃으시는 영상이 눈앞에 선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2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날로 발전하는 우리의 건축예술을 과시하는 하나의 곳으로 천지개벽되었으며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철저히 보장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에는 당을 받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정의 마음과 결사판철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숨배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과 령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숭고한 애국심을 안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선군시대의 본보기적 건축물로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훌륭히 완공한데 맞게 관리운영과 봉사활동을 잘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7월 1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항공봉사업무를 시작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전 반적인 급양, 상업봉사단위들의 봉사 수준이 높지 못하는데 이것은 비단 봉사

시설의 락후성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봉사원들의 관점과 립장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봉사업무를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안고 혁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답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자랑스러운 면모, 문명국

의 척도를 보여줄수 있도록 높은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대중봉사기자들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과정을 통하여

설자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은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본사현지모도반



설계와 시공, 건설감독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멋, 우리의 특성, 우리의 민족성이 살아나면서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모든것을 구상하고 설계하며 활주로포장과 시공방법 등 이면에 터득한 좋은 경험들에 토대하여 건설혁명의 새로운 포성을 더 높이 울려나아가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에서 발휘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움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위촉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은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사설

선군의 기치높이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우리 공화국은 자주로 존엄되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강국이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계국주의의 침략적도전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위훈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오늘은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괴뢰도당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5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침략자, 도발자들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와 복수심이 활화산처럼 타버지고있다.

조선전쟁은 우리 민족을 식민지 노예화하기 위한 파멸적이고 날강도적인 침략전쟁이었으며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한 전쟁이었다. 미제는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와 세계세계를 실현할 야망밑에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저들의 침략무력과 남조선괴뢰군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 등 20여만의 대병력을 끌어들이었으며 원자탄공격을 비롯한 가장 야만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써가며 침착한 우리 공화국을 요란기에 없애버리려고 미쳐 날뛰었다. 하지만 세계 《희망》을 자랑하던 미제는 100여년의 침략전쟁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참패를 당하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었다.

지난 조선전쟁은 갖 창건된 우리 공화국과 새 조국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존엄한 시련이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에서 해방후 5년동안 땅과 공장의 주인으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온 우리 인민은 그토록 소중한 조국을 빼앗길수 없고 다시는 침략자의 노예로 살수 없기에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수호의 성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우리 군대와 인민 유독민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적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의 자유독립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이 위대한 승리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영웅의 나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웅적군대, 영웅적인민으로 세계에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전법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철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승리였다.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의 명도를 받은 인민은 그 어떤 강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으며 그 무엇으로도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안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는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탁월한 사상과 지략, 뛰어난 평균술을 지니시고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정지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격파하시어 미제의 거만한 교대를 격어 놓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조선반도에는 공고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으며 새 전쟁의 위험은 날로 커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미국의 패권적야망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예나지금이나 변함없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침공을 버릴 대신 조선전쟁정형을 반복하게 짓밟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합동군사연습등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켜왔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악랄한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 시달렸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위태로워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의 범죄적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집권세력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 로선을 약에 차서 헐뜯으면서서서 조선반도를 도발하려고 미쳐 날뛰고있다. 미국과 괴뢰호전파들이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맞출형제전력》이니, 《4D작전계획》이니, 《4대작전원칙》이니 하는것들을 끌어들이며 대규모의 합동군사연

습들을 벌리면서 북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것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더욱이 미, 일,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공모결탁이 강화되고있는 속에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싸드》의 남조선배비가 기정사실화되고있는 엄중한 사태는 내외호전세력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이 최악의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동족압살을 노린 군사적도발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괴뢰당국의 호전적책동으로 하여 자주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장애와 난관이 닦이고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등에 업고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 매국반역세력의 책동은 온 겨레의 치사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현실은 내외호전파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 장할수 없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를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할수 없다는 력사적교훈을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오늘 전체 조선민족앞에는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 가자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지어지고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우리의 총대우에 진정된 평화가 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 는 여기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선군은 우리의 모든 승리와 위력의 원천이며 존엄과 자주권의 상징이다.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아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가 있고 불패의 일심단결이 있는 한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침략적도전에도 끄떡없다. 군사중시의 림장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우리 공화국을 계국주의침략세력이 감히 범접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선군조선의 자랑인 군민대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한다.

병진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은 결코 험상악구에 울려놓을 정치적홍정물이 아니다. 계국주의침략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군정치는 외세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전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애국애민적 정치이다. 북과 남, 해외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북침전쟁을 도발하던 침략자들이 그 어디에 있다고 해도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견여치워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핵전쟁위험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인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무력증강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침정화투쟁의 불길은 세계까지 지펴올려야 한다. 전쟁의 위협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이 따로 있을수 없고 계급과 계층, 정경과 신앙, 소속의 차이가 있을수 없다. 내외호전세력의 반공화국책동과 《인권》모략의 엄중성과 위험성을 폭로단죄하고 그것을 단호히 반대해나서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으며 우리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치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대응방식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더이상 모험적인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북침전쟁을 도발한다면 침략자들이 그 어디에 있다고 해도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견여치워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

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위해나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굳게 뭉쳐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놓아야 한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대결을 추구하여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대화》니, 《교류》니 하는 말보다는 실지 행동으로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려는 림장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침예하고 긴장하며 자주통일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회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있고 백두산혁명강군과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삼천리강토에 무궁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호전세력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대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까라르인사가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국해방 70돐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제외유한책임회사 총사장과 까라르 씨그네 이치견설회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로씨야 제외유한책임회사 총사장 벨리보얀 아르멘 에르드자니코비치와 까라르 씨그네 이치견설회사 총사장 마진 아부둘라흐

쌀뿔 쌀알야가 8일과 18일 해당 나라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슬로베니아 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슬로베니아준비위원회 결성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고르 유리씨크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6월 2일부터

10월 15일 까지의 기간에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수도와 지방등에서 위대한 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할 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6.25의 교훈을 망각하고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전쟁광기를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이 땅에서 미제가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때로부터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대로 바뀌고 산천도 변화하였다. 그러나 오늘날도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사태가 지속되고있다.

변하지 않는 날강도 미제의 전쟁행위가 날과 달을 이어 년년이 더 우습해지고있기때문이다. 원래 미국은 팽창이 시작되던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비밀리에 짜놓은 침략적인 《A, B, C전쟁계획》에 따라 침착한 우리 공화국을 《A》목표로 정해놓고 요란기에 없애버린 다음 편이 《B, C》목표인 중국 대륙과 이젠 소련의 팽창한 영토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칠 심산에서 침략전쟁의 포성을 울리였다. 미국의 이러한 야망은 오늘날도 변함없는 침략과 전쟁의 유행으로 조선반도에서 쉬임없이 배회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이고 그에 따른 미국의 침략적인 전쟁도발행위이며 아시아대륙에 대한 전략적인 포위망형성책동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하고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는 극단의 지경에 이르고있다. 온갖 어이없는음모를 총동원하여 우리에게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다못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함부로 헐뜯고 우리 인민의 삶과 편지를 허물며 우리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도 하고도 달려들고있다.

최근에는 유엔기구까지 동원하여 남조선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미국의 모략과 중상은 몇차례의 전쟁이나 살륙전을 강행한것보다 더 잔혹하다.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미국의 악랄한 봉쇄책동도 미중유의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생발사를 코에 걸고 시작된 미국의 대조선《제제》소동은 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있다.

지상, 해상, 공중의 합법적인 교역통로에 빗장을 치르고 나라들사이에 맺고있는 공정한 금융거래에 차관보를 내리는 등 우리 공화국을 통째로 질식시켜보려고 악랄하게 늘어내고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줄줄이

채택한 악착스러운 《제제결의》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력사는 파츠히틀러가 강행한 멘인그라드봉쇄를 인간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행위의 상징으로 기록하고있다.

기간에 있어서나 그 범위에 있어서 그에는 비할 바없이 극악무도한 《제제》소동이 미국의 대조선적 제봉쇄책동이다.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식권》하기 위한 미국의 제2의 조선전쟁계획은 이미 실천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우리의 중핵적인 전략대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외과수술식타격계획》으로부터 공화국북부민지의 전지역을 강점하기 위한 여러가지 작전계획에 이르는 미국의 전면전쟁각본이 오해전에 꾸며지고 그것이 《리 리콜브》와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실천훈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에 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지어 우리의 《수녀부제》를 노린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해놓고 대규모적인 새군준비까지 다지고있는 형편이다.

지금은 핵전략폭격비행대와 핵동력항공모함타격단을 빈번히 돌리면서 로골적인 위협과 공갈적 침략전쟁의 기회를 노리고 매일, 매 시, 매 분, 매 상, 공중에서의 의도적인 도발로 침략전쟁개시의 구실을 찾고있는것이 미국이다.

지난 세기 50년대 6.25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은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 봉쇄, 압살도수를 한층없이 높이며서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책동은 더이상 방관시킬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6.25미제 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날강도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전대미문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족적인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한다는것을 온 세계에 공표한다.

영원히 풀수 없는 한을 남긴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다.

더이상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승냥이무리이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기간 우리 공화국의 매 km² 당 18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수도 평양에는 인구 한사람당 1개가 넘는 방대한 량의 폭탄을 떨어뜨린 한 상태이다.

새군전과 화확전까지 벌려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악마들이다.

신천방에서만도 강점 50여일동안 군내주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3만 5380여명을 총살, 타살, 교살, 생매장, 불태워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 땅을 통째로 하나의 《신천》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사람가죽을 쓴 승냥이무리 미제였다.

우리를 노린 침략전쟁계획도 견여치워야 하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벌리는 무모한 핵전쟁소동도 중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무엇을 초래했는가를 지금이라도 맹목하게 들여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무모한 핵공갈이 우리를 자위적억제력보유에 도 떨어졌고 광기어린 미사일위협소동이 우리의 전략, 전술목표를 장비한 강력한 타격집단을 산생시켰으며 변방없는 《평양타격》시도가 정밀한 미극본도타격력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의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지속될수록, 그에 따른 전쟁광기에 들떠있을수록 그것은 날강도 미제의 최후과멸을 촉진시키는 비극적결과만을 초래하게 할것이다.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일념은 하늘끝에 치달리고있다.

미국은 상용전쟁에도, 핵전쟁에도, 싸이버전에도 다 준비되어있다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며 대항해한다.

우리의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지속될수록, 그에 따른 전쟁광기에 들떠있을수록 그것은 날강도 미제의 최후과멸을 촉진시키는 비극적결과만을 초래하게 할것이다.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일념은 하늘끝에 치달리고있다.

우리에게는 인민대중의 심장깊이 뿌리내린 굳건한 주권이 있고 평등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뭉쳐진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강적과도 두려움없이 대결할 세계최강의 무력과 끄떡없이 발붙이고있는 전국가적인 난공불락의 튼튼한 보루가 있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조선민족 자체를 부정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보다 더 악랄하고 세게를 이리이리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히틀러의 세계제패망상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한 악육강식의 정책으로 락인한지 오래다.

비록 때때로있는 있으나 백년, 천년이 가도 실현 불가능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즉시 포기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우리를 노린 침략전쟁계획도 견여치워야 하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벌리는 무모한 핵전쟁소동도 중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무엇을 초래했는가를 지금이라도 맹목하게 들여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무모한 핵공갈이 우리를 자위적억제력보유에 도 떨어졌고 광기어린 미사일위협소동이 우리의 전략, 전술목표를 장비한 강력한 타격집단을 산생시켰으며 변방없는 《평양타격》시도가 정밀한 미극본도타격력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의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지속될수록, 그에 따른 전쟁광기에 들떠있을수록 그것은 날강도 미제의 최후과멸을 촉진시키는 비극적결과만을 초래하게 할것이다.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일념은 하늘끝에 치달리고있다.

미국은 상용전쟁에도, 핵전쟁에도, 싸이버전에도 다 준비되어있다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며 대항해한다.

우리의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지속될수록, 그에 따른 전쟁광기에 들떠있을수록 그것은 날강도 미제의 최후과멸을 촉진시키는 비극적결과만을 초래하게 할것이다.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일념은 하늘끝에 치달리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마부토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모잠비끄해방전선당창건 53돐에 즈음하여 귀 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이 기회에 당을 강화하고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두 당사이의 오랜 친선호전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4(2015)년 6월 24일

평 양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천만군민을 최후결전으로 부른다

조국보위의 노래

1. 가슴에 꿰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위에 빛나다

(후렴)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이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2. 우리의 부모형제 우리가 사는 곳

제국주의 침략에 한치인들 밝히자

(후렴)

3. 정의의 총칼로써 원수를 무찔러

공화국은 영원히 부강하게 살리자

(후렴)

전화의 시기 조국방위자들의 심장의 기록

지난 조국해방전쟁기 남녘 땅을 해방하며 노도와 같이 진격해나간 우리 군위부대들의 자랑스러운 위훈은 남진의 길에서 태어난 잊을수 없는 시들과 전사기요 역사기록과 같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 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대 인민군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소이다.》

적들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심장마다에 총탄처럼 새운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을 쫓아내려는 반공격전을 발발하고 인민군대가 남진의 길에 오르는 시대의 시인들과 총잡은 병사들까지도 육박의 창끝인 양 북돋고 고무되어 승리의 기적들을 속속 적어나갔다.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전쟁은 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마구 판도질하였지만 총을 쏘는 병사들의 성격과 감성, 인민의 생활감정을 거칠어진 것이 아니라 더 소박하고 깨끗하고 더 예석하였다. 우리의 종군작가, 시인들은 남진의 싸움길을 반영한 시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전군, 전군도 전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하며 정의로운 병사들의 성장모습과 투쟁기세, 열망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남진의 길에 오른 병사들은 너나할것없이 시인들, 종군작가들이 심장으로 피력해가는 총포탄보다 위력한 시들의 영웅적구공들이 되었다.

일요일 새벽에 전쟁을 도발한 침략자들은 아침 해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뜨게 될것이라고 췌쳐냈다. 미제침략자들의 뻔뻔스러운 나발과 무력침공소식에 격분을 금치 못한 시인 김성호는 자기 시 《38선》에서 경감중심한 미국장사들은 늘 자기네의 국경을 잊어버리나 우리는 잊지 않으며 우리 조선의 남쪽 국경선이 제주도, 저쪽이라는 것을 이 나라 병사들의 이름으로 엄숙히 확인하였다.

김철은 시 《우리 나라 지도》에서 영남의 숲이며, 우리를 기다리라 다도해의 섬들이여, 우리를 마중하라 한나산 백록담에 서의 입술 대고 우리는 이 땅을 지키는 것이라고 남진의 길에 오르는 병사들의 심정을 뜨겁게 토로하였다.

인민군병사들과 함께 전격의 길에 올라 락동강계곡까지 다녔을 시인 김복현은 영웅적인 락동강도하전투를 직접 목격하고 《락동강》, 《남해가 앞에 있다!》와 같은 공화국남부해방과 조국통일에 대한 갈망으로 끓어넘치는 격동적인 시들을 창작하였다. 전격의 발걸음이 가닿는 곳

마다에서 《나의 떠남》, 《남으로 가는 길에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총을 놓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조국통일의 의지가 고동하는 시들이 태어났다. 종군작가, 시인, 병사들이 싸운 전선과 후방은 서로 다르고 작품들의 창작경위도 같지 않지만 남진의 길에 오른 군위부대들의 도도한 흐름, 표현자속 남진의 싸움길, 그 시작점과 종착점이지도않고 같이 얼마나 상쾌하게 눈앞에 보이는것인가.

남진의 길에서 태어나 전쟁 전기간 조국의 모든 고지들과 싸움길에 울려 퍼져 승리에 고고 무추동한 전사기요 《진군 또 진군》에도 군위부대들의 투쟁과 혁혁한 위훈의 발자국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조국해방전쟁소리의 결정적구원을 열어놓은 승리의 반공격전, 단숨에의 기상을 안고 남진의 길에 오른 병사들의 전격속도를 응원으로 보여주는 노래이다.

전군 또 전군하여 전격 또 전격으로, 이것이 남진의 길에 오른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의 기상이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의 전승광장으로 향한 한순간도 멈추지도 늦추지도 않은 위대한 승리자들의 보폭이리라.

전사기요 《진군 또 진군》에는 바로 위대한 전격의 순간에 최고사령부 작전도우에 그어주

신 화살표를 따라 하늘에서, 땅 위에서, 바다에서 전격의 물과 구를 넘어 남녘땅을 해방시켜 질풍같이 내달린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행로가 있다.

이 땅의 병사들이 영원히 따라세워야 할 신념의 보폭이 무엇이며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병사가 태어나서 가야 할 행군길의 시작점과 종착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전사기요 《진군 또 진군》을 부르며 우리의 새 세대들은 다시금 심장깊이 자각하고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조국통일대전의 목적은 반세기이상 침략자의 발발에 짓밟혀 상흔하는 남녘땅을 해방하는 것이며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이 땅에서 원수 미제를 모조리 쓸어버리는 것이다.

조국통일대전의 그날이 온다면 경애하는 인수님의 부르심과 락동강계곡의 남을 거머안아오야말 병사의 맹세가 전사기요 《진군 또 진군》과 더불어 《군위부대사》에 힘있게 메아리친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군기에 승리만을 아로세진 군위부대들의 자랑스러운 전승은 굳건히 이어졌으며 우리의 영웅적조선인민군대가 《군위부대사》를 전승의 노래로 부르며 통일광장에 서 승리의 열병식을 거행하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수정

는 적비행기의 사격으로 전우들이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친백배의 복수를 다짐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이느라 몸이 허거늘 때도 지치지 않았다. 그때마다 우리가 잡지라도 지체하면 전우들의 걸음이 늦추어지게 되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물었다.

“우리는 승리의 보기가 늦어지지 않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날의 불사격으로 배에 구멍이 뚫어지면 쓸어들어 가지 않게, 잠시라도 지체하면 배가 가라앉을 위급한 순간을 우리들의 손과 발로 버텨내야 한다.”

“그러니 노를 저어라!”

“그러는 우리들을 배에 탄 전우들이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았다.”

“얼마후 우리는 도하를 마치고 비호같이 적진으로 달려가는 전우들의 뒤에 대고 목에 당부하였다.”

“동지들! 승리를 부탁한다.”

그날의 락동강에는 물이 아니라 나라 아들딸들의 피가 흘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는 후대들에게 당부하고싶다. 불라는 락동강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불과 물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인민군용사들을 언제나 잊지 말라. 그 최후를 그 기억으로 투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리라라는것을...”

수기를 덮는 우리의 눈앞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삶과 투쟁의 거울이 되길 기대한다. 다시 조립하여 부대들의 도하를 보장하곤 하였다. 가슴아픈 회생도 있었다. 철새없이 퍼부

본사기자 리수정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 진행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이 24일 중앙계급교양반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최수동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성토문을 낭독하였다.

그는 6. 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으며 미제침략자들을 죽탕쳐버리고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필적의 의지와 불타는 적개성이 온 강산에 차넘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가 이 땅에서 도발한 전쟁은 전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세계체제를 실현하려는 야망밑에 감행된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었으며 인류전쟁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살육전쟁이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이 정벌하고야말 의지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강조하였다.

이어 미제의 만행체첩자 김명규, 중구역건설사업소 조급직맹위원장 함광호, 중구역건설관리소 로동자 공순철이 토론하였다.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미제가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살육만행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미제가 말로 우리 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인두집을 쓴 야만의 무리, 한하늘을 쓴 살수 없는 국악한 원수들이라고 준렬히 규탄하였다.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는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도 미제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미제가 원자탄으로 우리 인민을 위협하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 하고 하면서 핵무기개발사업의 현명함에도 의하여 선군조선이 자위적전쟁적태세를 갖추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고 세계적으로 떨쳐나가고있다 강조하였다.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께서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새 전쟁도발행동을 단호히 제압하고 반대반대결전을 승리로 령도하시게하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주체의 최고성리 규수선언양공전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의 새로운 병전선전의 요구대로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여석에 지켜갈것이라고 단호하였다.

우리의 운명이시며 핵무기개발의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당하여 반발고 결사보위하는 성세, 방패, 총포탄이 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신장에 조아박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한순에는 총을, 다른 한순에는 마치를 틀어쥐고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요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원금미풍을 더욱 높여 발휘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한순에는 총을, 다른 한순에는 낫을 여석에 틀어잡고 군사를 성실히 배움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만일 미제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지고자하는 무전막강한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원수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쌓이고 쌓인 민족의 원한을 천백배로 불고야말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회세의 선군명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입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본문제를 다는 순간부터 무자비한 타격 대상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우리의 거둬지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이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화군을 남조선훈에 끌어들이고서 하여 북남관계는 대이상 만회할수도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남조선피뢰패당은 이제는 말로 할때는 지나갔다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동쪽의 선의와 아랑에 도전하여 북남관계와 파국으로 몰아가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판을 일삼는자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것이 못되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뿐이라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남관계당에 지게 될것이다.

유엔의 력사에 가장 추악스러운 오명을 남긴 《북인권사무소》라는 유명모략기구기는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격렬한 투쟁에 의하여 풍지박산났으며 피뢰패당들의 반인륜적대행을 폭로하는 전사기요 되고있었다.

주제 104(2015)년 6월 24일 평양

살육만행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온 나라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오늘도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유권을 무참히 유린하면서 핵전쟁의 불기름을 불어오르고 악랄하게 핵동맹국인 미제를 준렬히 규탄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늘 우리앞에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행동을 단호히 짓부르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이 땅에서 반드시 통일되고 무장반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요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원금미풍을 더욱 높여 발휘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며 한순에는 총을, 다른 한순에는 낫을 여석에 틀어잡고 군사를 성실히 배움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만일 미제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지고자하는 무전막강한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원수들을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쌓이고 쌓인 민족의 원한을 천백배로 불고야말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회세의 선군명장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입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본문제를 다는 순간부터 무자비한 타격 대상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우리의 거둬지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이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화군을 남조선훈에 끌어들이고서 하여 북남관계는 대이상 만회할수도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남조선피뢰패당은 이제는 말로 할때는 지나갔다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동쪽의 선의와 아랑에 도전하여 북남관계와 파국으로 몰아가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판을 일삼는자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것이 못되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뿐이라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남관계당에 지게 될것이다.

유엔의 력사에 가장 추악스러운 오명을 남긴 《북인권사무소》라는 유명모략기구기는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격렬한 투쟁에 의하여 풍지박산났으며 피뢰패당들의 반인륜적대행을 폭로하는 전사기요 되고있었다.

주제 104(2015)년 6월 24일 평양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성토모임 진행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파국적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지난 23일 우리의 거둬지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이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기관을 내건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를 서울에 설치하였다.

이에 대해 지금 피뢰패당자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이 입을 모아 《역사적인 리정조》나, 《필요없는 지원과 협력》이니하고 떠들어대고있으며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도 이 기회에 《국회》에 머물러있는 《북인권법》을 처리하겠다고 악을 쓰고있다.

이때 박당과 적대세력들은 《한영》이니 뭐니 하고 지껄여대면서 반공화국 압살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극악한 특대형침략도발행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국의 조종밑에 피뢰패당이 감행한 반공화국《인권》모략기구설치소동을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로폭적인 선전조도라고 타탄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 15돌을 맞으며 우리는 공화국정부성명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리정발에 엄중한 위기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

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진적구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과 공평정대한 방도를 천명하였다.

은 거며가 우리 공화국정부성명문을 받아안고 환호하며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는데 박근혜당이 추악한 대결모략소동을 공공연히 벌인것은 우리의 아랑과 성의를 전전거부하고 거며의 기대와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행위이다.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것은 승수장 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멸의 위력에 질질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괴롭압살하기 위해 한층도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의 허위증언으로 날조된 자료를 내주고 유엔의 이름을 동용하여 조작해낸 불법적인 모략기구이다.

때문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유엔의 말을 쓴 반북모략기구》, 《인권의 말을 쓴 기만적인 내정간섭기구》로 규탄하고서 체제대결을 무수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며 전쟁을 불러오는 《북인권사무소》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남을 일삼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을 《불법》을 운운하며 무자비하게 짓밟고 수백명의 어린

명들을 무참히 수장시킨 대참사를 빚어내고도 그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독성회무탄을 쏘아대며 무자비적으로 탄압하는 반인륜적대행의 종횡전사장, 전대미문의 인권탄압적대가 바로 박근혜를 비롯한 《유엔》주체의 후들이 살판치고있는 남조선이다.

이러한 특등인권법위자들이 감히 핵무기개발사업의 한없는 인민사랑의 정지에 떠돌며 행복의 대외연으로 반대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고있는 것이야말로 첩멸죄의 극치이며 가장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이다.

이런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행동은 박근혜당의 동족대결행위는 추호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 교활성과 악랄성이 있어서 역대 독재자들을 훨씬 통가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런자들이 그 무슨 《대화》와 《관계개선》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연어도안 아닐수 없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편승하여 《홍수통일》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박근혜당의 흉악한 속심이 더욱 명백히 드러난 조연에서 북남관계는 더욱 암울해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유엔《북인권사무소》가

본문제를 다는 순간부터 무자비한 타격 대상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우리의 거둬지는 경계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이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화군을 남조선훈에 끌어들이고서 하여 북남관계는 대이상 만회할수도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남조선피뢰패당은 이제는 말로 할때는 지나갔다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동쪽의 선의와 아랑에 도전하여 북남관계와 파국으로 몰아가는 히스테리적인 대결광판을 일삼는자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것이 못되며 최후의 결판만이 남아있을뿐이라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남관계당에 지게 될것이다.

유엔의 력사에 가장 추악스러운 오명을 남긴 《북인권사무소》라는 유명모략기구기는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의 격렬한 투쟁에 의하여 풍지박산났으며 피뢰패당들의 반인륜적대행을 폭로하는 전사기요 되고있었다.

주제 104(2015)년 6월 24일 평양

단상 수호자들

6. 25를 계기로 사람들은 누구나 전쟁의 불기름이 일어났던 60여년전의 일들을 되새기며 떠올린 한다.

전쟁에 참가했던 로병들, 지금은 다 자라 어른이 되었지만 그때에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있던 철부지들도 또 전쟁의 시련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도...

나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아침 대문표를 지나 출근길에 다그치는 나의 머리카락도 줄곧 어찌 본 전쟁시기의 신문자료들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중에는 전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3명의 소년단원에게 국기수장 제 3명, 4명의 소년단원들에게 공로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한 1951년 7월 11일부 《로동신문》자료도 있었다.

이 땅에는 결코 잊힌 것들이 위훈과 붉은 피를 댄것들이 아니다. 새 민주조선의 주인이 되리라 마음다지며 배움의 나

패를 한창 펼치던 10대의 소년들, 따라서 조국의 품속에 구를 내려 무언뜻을 알기 시작하던 어린 세대들의 빨간 피방울도 처음이다.

역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소년 빨치산이었던 양양소년단원대, 초옥소년단원대, 안주관방소년단원대, 구미소년단원대... 이 땅의 거리와 마을들에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소년들의 불멸의 위훈이, 지혜롭고 용감하며 순진하고 깨끗한 소년들의 투쟁의 발자취가 깃들여있는가.

공민증보다 먼저 조국이 주는 빛나는 훈장을 받은 10대의 소년들, 그들도 수호자들이다. 수호자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뚜렷한 흔적을 기록한 그들의 투쟁에서 나는 다시금 새삼스럽게 가슴다는다.

흔린 병사한테만 수호자의 의미가 있는것은 아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격전장에서 병사는 따로 없으며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모두가 수호자들이다! 본사기자 오은별

평화가 수렁을 수렁이 되어 전쟁이 부흥을 부흥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 날은 일요일이었다

미제는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재일동포들 강조

오늘은 6월 25일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이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 인민은 남강도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불타는 복수심으로 심장을 뛰었다.

65년전 바로 이날에 백년속적 미제가 민주공화국의 동등고독고 새 생활창조의 노래를 부르던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던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은 감정한 첫날부터 침략전쟁도 반쯤 지나고 다쳐오면 미제와 남조선피괴도당은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불의에 공화국북반부를 뒤흔들고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하였을 것이다.》

가장 친된 우리 공화국을 요람에 말할까 세계제국에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남강도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한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이면 누구나 평온 속에서 즐겁게 휴식하면서 앞날을 그려보곤 한다.

1950년 6월의 그 일요일에도 우리 인민은 커지는 행복에 겨워 더 좋은 배역을 위해 새 조국건설의 마치소리 우렁차게 울려갈 꿈을 꿔고있었다. 해방전쟁은 끝났고 그려보지 못한 꿈같은 세상에서 나라의 주인, 공장과 땅의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행복함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기쁨과 열의는 이만저만 아니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인

6월 24일부 《로동신문》은 력사적인 로동법률발포 4돐에 즈음한 사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는 진정한 인민정권이 수립되었으며 제반 민주적력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로동계급의 세계적속망이었던 선진적인 로동법령이 실시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로동법령이 실시된 후 4년만에 북반부노동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은 공화국정부의 일상적인 배려에 의하여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또 부단히 향상되고있다. ...로동자들의 수입은 기존입금보다도 평균 63.5%나 증가되었다. 임금규약에도 각자의 노력의 량과 실에 따라 수액원에 달하는 각종 상급, 상품, 가급금을 받았으며 1949년말현재로 177 142호의 국가주택을 리용하고있으며 ... 작업부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 ... 국가의 리익과 자기의 리익이 현연적으로 결부되어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있는 전체

로동자들은 자각적으로 로동규율을 강화하고 애국적생산경쟁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1946년에 비하여 1949년에는 로동생산성을 283.4%로 제고시켰으며 공업생산고를 실로 377%로 증가시켰다. ...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기쁨과 행복 역시 로동자, 사무원들과 다를바 없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근로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남반부도 행복이 커만 가는 꿈같은 세월, 창조와 로동으로 가슴들먹이는 환희의 나날은 일시 중단되어야 했다.

미제가 일요일인 6월 25일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개시날로 정한것은 이렇듯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제놈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우려는 비렬하고도 나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세계가 평온한 날로 여기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침략전쟁에 도용하여 평화로운 이 땅에 무혈적침공을 들이던 남강도 미제,

인류력사에서 가장 치렬하고 파괴적인 전쟁의 하나로 기록되어있는 지난 조선전쟁은

버트는 미국이 왜 6월 25일을 전쟁개시날로 정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밝히면서 이날은 일요일이라는것, 그리스도교를 믿는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으며 미국이나 남조선이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없을 일시 중단되어야 했다.

미제가 일요일인 6월 25일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개시날로 정한것은 이렇듯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제놈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우려는 비렬하고도 나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세계가 평온한 날로 여기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침략전쟁에 도용하여 평화로운 이 땅에 무혈적침공을 들이던 남강도 미제,

인류력사에서 가장 치렬하고 파괴적인 전쟁의 하나로 기록되어있는 지난 조선전쟁은

미제가 일요일인 6월 25일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개시날로 정한것은 이렇듯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제놈들의 흉악한 정체를 가리우려는 비렬하고도 나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세계가 평온한 날로 여기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침략전쟁에 도용하여 평화로운 이 땅에 무혈적침공을 들이던 남강도 미제,

남강도 미제의 침략성, 야수성, 잔인성과 함께 비렬하고 교활한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제국주의침략전쟁이였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일으킨 조선전쟁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신약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도발자들의 수괴가 말로 참예로 끝나고말았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5년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멀리 흘렀으나 우리 인민과 새 세대들은 전쟁의 불길의 치오던 1950년 6월의 그 일요일을 잊고 한탄 외는 적이 없었다.

만일 미제가 지난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예를 당한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다시는 항복서도 도장을 찍을 줄도 없게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삼천리강산에 백두산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지곤

사회주의조국에서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는 재일동포들은 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미제침략자들에게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히로시마초진초중고급학교 교장 김영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해마다 6월 25일이 되면 우리의 가슴마다에서는 침략자 미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절박성이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65년전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말살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본사기자 김지곤

저들의 아시아예전전략실현을 위해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참화를 들이치는 미제의 만행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있다. 그제 조선고급학교 교장 황성학은 미제의 야수성에 격분을 표시하며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간의 말을 쓴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만행은 세계전쟁력사상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야만적이며 반인륜적인 특대형범죄였다.

전쟁 전기간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 미제의 남강도적인 조선침략에 의하여 해방의 환희가 강산에 넘치고 있었음은 새 생활창조의 노래높이 이 땅에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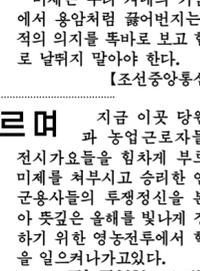
본사기자 김지곤

같이 강조하였다. 미제가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력사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한다 해도 달라지지 않는것이 미제의 살인마적본성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예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침략자의 본성 그대로 오늘날 남조선보수세력과 야합하여 제2의 조선전쟁을 획책하고있다.

미제는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앞잡아보고 감히 조선전쟁을 일으키며 핵공갈을 하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 사회주의 조국은 백두의 천출명장들의 탁월한 령도밑에 반미제반대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면하지 자랑스럽게 전승을 가진 위대한 나라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만신창이 되게 얻어맞는 수직스러운 과거를 망각하고 분별없이 달려들다면 차레질것은 과별뿐이다. 미제는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민족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김지곤



창조와 건설의 대가님비를 이 즐겁게 일떠세우는 수도의 행복으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기슭에서 우리의 걸음이 무거워진다.

시간을 주름잡으며 키를 솟구는 비파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보란만 할 수 있는 대동강의 시원한 물결에 손을 적시던 건설자들, 노을비친 유보도를 거닐며 회관을 속삭이던 청년들도 문득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는 곳이 있다. 양각도로 가로 건너간 철다리를 만치고 서있는 기둥들에 생생히 남아있는 파편자리, 총탄자리.

그것은 아물수 없는 상처만 남이 땅에 남아있는 전쟁의 뚜렷한 흔적이다. 새로 일떠선 아파트창문가에 행복의 웃음 넘치고 대동강물결위에 보도 높이 즐거움 이 땅에 그렇게도 참혹한 전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력사의 흔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한합을 이고 같이 살수 없으며 적들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시간도 화약과 불탄 풍겨 날것 같은 그 파편자리를 바라보노라면 전하의 나날 우리 조국방에 무수히 터져오르던 살포의 불기둥들이 눈앞에 어리운 듯하다.

미제는 우리 조국의 수도, 혁명의 심장부인 평양을 지도 위에서 영영 없애버리고 전쟁 3년간 1400회이상 걸쳐 42만 8천여명의 폭탄을 퍼부어댔다. 이것은 그때 당시 평양의 인구 1인당 1개가 넘는 폭탄을 퍼부은것으로 된다. 대동강을 가로지른 이 철길도 전선으로의 수송의 길을 막으려고 미쳐달리던 미제의 맹목적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미제의 그 어떤 폭탄도 철다리를 떠안든 저 여섯 기둥들을 허물어뜨리지 못했다. 그렇게도 견고한 콘크리트 《살결》을 문명문명 때여버리던 잔악한 미국제과편, 그 파편의 잔부속에서 파

피부어났다. 이것은 그때 당시 평양의 인구 1인당 1개가 넘는 폭탄을 퍼부은것으로 된다. 대동강을 가로지른 이 철길도 전선으로의 수송의 길을 막으려고 미쳐달리던 미제의 맹목적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미제의 그 어떤 폭탄도 철다리를 떠안든 저 여섯 기둥들을 허물어뜨리지 못했다. 그렇게도 견고한 콘크리트 《살결》을 문명문명 때여버리던 잔악한 미국제과편, 그 파편의 잔부속에서 파

피부어났다. 이것은 그때 당시 평양의 인구 1인당 1개가 넘는 폭탄을 퍼부은것으로 된다. 대동강을 가로지른 이 철길도 전선으로의 수송의 길을 막으려고 미쳐달리던 미제의 맹목적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미제의 그 어떤 폭탄도 철다리를 떠안든 저 여섯 기둥들을 허물어뜨리지 못했다. 그렇게도 견고한 콘크리트 《살결》을 문명문명 때여버리던 잔악한 미국제과편, 그 파편의 잔부속에서 파

피부어났다. 이것은 그때 당시 평양의 인구 1인당 1개가 넘는 폭탄을 퍼부은것으로 된다. 대동강을 가로지른 이 철길도 전선으로의 수송의 길을 막으려고 미쳐달리던 미제의 맹목적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미제의 그 어떤 폭탄도 철다리를 떠안든 저 여섯 기둥들을 허물어뜨리지 못했다. 그렇게도 견고한 콘크리트 《살결》을 문명문명 때여버리던 잔악한 미국제과편, 그 파편의 잔부속에서 파

피부어났다. 이것은 그때 당시 평양의 인구 1인당 1개가 넘는 폭탄을 퍼부은것으로 된다. 대동강을 가로지른 이 철길도 전선으로의 수송의 길을 막으려고 미쳐달리던 미제의 맹목적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미제의 그 어떤 폭탄도 철다리를 떠안든 저 여섯 기둥들을 허물어뜨리지 못했다. 그렇게도 견고한 콘크리트 《살결》을 문명문명 때여버리던 잔악한 미국제과편, 그 파편의 잔부속에서 파

피부어났다. 이것은 그때 당시 평양의 인구 1인당 1개가 넘는 폭탄을 퍼부은것으로 된다. 대동강을 가로지른 이 철길도 전선으로의 수송의 길을 막으려고 미쳐달리던 미제의 맹목적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미제의 그 어떤 폭탄도 철다리를 떠안든 저 여섯 기둥들을 허물어뜨리지 못했다. 그렇게도 견고한 콘크리트 《살결》을 문명문명 때여버리던 잔악한 미국제과편, 그 파편의 잔부속에서 파

피부어났다. 이것은 그때 당시 평양의 인구 1인당 1개가 넘는 폭탄을 퍼부은것으로 된다. 대동강을 가로지른 이 철길도 전선으로의 수송의 길을 막으려고 미쳐달리던 미제의 맹목적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미제의 그 어떤 폭탄도 철다리를 떠안든 저 여섯 기둥들을 허물어뜨리지 못했다. 그렇게도 견고한 콘크리트 《살결》을 문명문명 때여버리던 잔악한 미국제과편, 그 파편의 잔부속에서 파

해방과 함께 불이든 발같이 하는 동민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지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넘치는 안변, 바로 그 기름진 땅을 붉은 피로 물든인 야수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살인귀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갈취한 야수적만행을 온갖 도 및치 말아야 하며 그들의 잔악한 만행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저 하나하나의 파편자리, 총탄자리, 총탄자리 들을 대를 이어가는 반미제반대투쟁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천추의 영혼으로, 복수의 글발로 새겨안은 마음들이 칼날같은 맹세를 버린다.

다시는 미국놈의 거증스러운 폭탄이 우리의 겨리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 더러운 구멍이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손발 하나 해치지 못하게 자위의 생세를 더 높이 쌓아올리리라. 또다시 미제가 전쟁을 강요한 다면 저주받은 미국땅을 제더미로 만들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구상에서 털어버리리라.

바로 그런 날이 올때까지 우리는 저 파편자리를 보고 또 보며 가릴없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생각할것이며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선군의 한길로 꽃이 나날것이다. 전쟁의 흔적을 새겨안은 기둥들을 딛고서 끝없이 뻗어나간 두줄기 철길, 복수의 궤도를 가슴에 안고

본사기자 승철진

해방과 함께 불이든 발같이 하는 동민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지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넘치는 안변, 바로 그 기름진 땅을 붉은 피로 물든인 야수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살인귀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갈취한 야수적만행을 온갖 도 및치 말아야 하며 그들의 잔악한 만행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저 하나하나의 파편자리, 총탄자리, 총탄자리 들을 대를 이어가는 반미제반대투쟁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천추의 영혼으로, 복수의 글발로 새겨안은 마음들이 칼날같은 맹세를 버린다.

다시는 미국놈의 거증스러운 폭탄이 우리의 겨리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 더러운 구멍이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손발 하나 해치지 못하게 자위의 생세를 더 높이 쌓아올리리라. 또다시 미제가 전쟁을 강요한 다면 저주받은 미국땅을 제더미로 만들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구상에서 털어버리리라.

바로 그런 날이 올때까지 우리는 저 파편자리를 보고 또 보며 가릴없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생각할것이며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선군의 한길로 꽃이 나날것이다. 전쟁의 흔적을 새겨안은 기둥들을 딛고서 끝없이 뻗어나간 두줄기 철길, 복수의 궤도를 가슴에 안고

본사기자 승철진

해방과 함께 불이든 발같이 하는 동민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지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넘치는 안변, 바로 그 기름진 땅을 붉은 피로 물든인 야수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살인귀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갈취한 야수적만행을 온갖 도 및치 말아야 하며 그들의 잔악한 만행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저 하나하나의 파편자리, 총탄자리, 총탄자리 들을 대를 이어가는 반미제반대투쟁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천추의 영혼으로, 복수의 글발로 새겨안은 마음들이 칼날같은 맹세를 버린다.

다시는 미국놈의 거증스러운 폭탄이 우리의 겨리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 더러운 구멍이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손발 하나 해치지 못하게 자위의 생세를 더 높이 쌓아올리리라. 또다시 미제가 전쟁을 강요한 다면 저주받은 미국땅을 제더미로 만들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구상에서 털어버리리라.

바로 그런 날이 올때까지 우리는 저 파편자리를 보고 또 보며 가릴없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생각할것이며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선군의 한길로 꽃이 나날것이다. 전쟁의 흔적을 새겨안은 기둥들을 딛고서 끝없이 뻗어나간 두줄기 철길, 복수의 궤도를 가슴에 안고

본사기자 승철진

해방과 함께 불이든 발같이 하는 동민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지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넘치는 안변, 바로 그 기름진 땅을 붉은 피로 물든인 야수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살인귀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갈취한 야수적만행을 온갖 도 및치 말아야 하며 그들의 잔악한 만행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저 하나하나의 파편자리, 총탄자리, 총탄자리 들을 대를 이어가는 반미제반대투쟁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천추의 영혼으로, 복수의 글발로 새겨안은 마음들이 칼날같은 맹세를 버린다.

다시는 미국놈의 거증스러운 폭탄이 우리의 겨리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 더러운 구멍이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손발 하나 해치지 못하게 자위의 생세를 더 높이 쌓아올리리라. 또다시 미제가 전쟁을 강요한 다면 저주받은 미국땅을 제더미로 만들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구상에서 털어버리리라.

바로 그런 날이 올때까지 우리는 저 파편자리를 보고 또 보며 가릴없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생각할것이며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선군의 한길로 꽃이 나날것이다. 전쟁의 흔적을 새겨안은 기둥들을 딛고서 끝없이 뻗어나간 두줄기 철길, 복수의 궤도를 가슴에 안고

본사기자 승철진

해방과 함께 불이든 발같이 하는 동민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지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넘치는 안변, 바로 그 기름진 땅을 붉은 피로 물든인 야수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살인귀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갈취한 야수적만행을 온갖 도 및치 말아야 하며 그들의 잔악한 만행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저 하나하나의 파편자리, 총탄자리, 총탄자리 들을 대를 이어가는 반미제반대투쟁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천추의 영혼으로, 복수의 글발로 새겨안은 마음들이 칼날같은 맹세를 버린다.

다시는 미국놈의 거증스러운 폭탄이 우리의 겨리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 더러운 구멍이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손발 하나 해치지 못하게 자위의 생세를 더 높이 쌓아올리리라. 또다시 미제가 전쟁을 강요한 다면 저주받은 미국땅을 제더미로 만들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구상에서 털어버리리라.

바로 그런 날이 올때까지 우리는 저 파편자리를 보고 또 보며 가릴없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생각할것이며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선군의 한길로 꽃이 나날것이다. 전쟁의 흔적을 새겨안은 기둥들을 딛고서 끝없이 뻗어나간 두줄기 철길, 복수의 궤도를 가슴에 안고

본사기자 승철진

해방과 함께 불이든 발같이 하는 동민들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지고 가을이면 수확의 기쁨넘치는 안변, 바로 그 기름진 땅을 붉은 피로 물든인 야수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살인귀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갈취한 야수적만행을 온갖 도 및치 말아야 하며 그들의 잔악한 만행을 끝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저 하나하나의 파편자리, 총탄자리, 총탄자리 들을 대를 이어가는 반미제반대투쟁에서 영원히 안고 살아야 할 천추의 영혼으로, 복수의 글발로 새겨안은 마음들이 칼날같은 맹세를 버린다.

다시는 미국놈의 거증스러운 폭탄이 우리의 겨리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 더러운 구멍이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손발 하나 해치지 못하게 자위의 생세를 더 높이 쌓아올리리라. 또다시 미제가 전쟁을 강요한 다면 저주받은 미국땅을 제더미로 만들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지구상에서 털어버리리라.

바로 그런 날이 올때까지 우리는 저 파편자리를 보고 또 보며 가릴없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생각할것이며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선군의 한길로 꽃이 나날것이다. 전쟁의 흔적을 새겨안은 기둥들을 딛고서 끝없이 뻗어나간 두줄기 철길, 복수의 궤도를 가슴에 안고

본사기자 승철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로씨야 국가 회의 의장 회담

최태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로씨야 연방 최고인민회의 의장 니콜라이 푸틴은 23일 로씨야 국가회의의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의장인 최태복, 로씨야측에서 의장인 니콜라이 푸틴이 참가하였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을 만났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23일 평壤에서 로씨야련방평의회 의장인 니콜라이 푸틴을 만났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의장인 최태복, 로씨야측에서 의장인 니콜라이 푸틴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회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성중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우리아바나에 도착하였다. 이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과 아가베도 브라모우이 적도기네 외무 및 협조상의 회담이 22일에 있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

우리 나라 외무상과 적도기네 외무 및 협조상 회담

적도기네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과 아가베도 브라모우이 적도기네 외무 및 협조상의 회담이 22일에 있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

재생산 건강도론회 진행

재생산건강도론회가 24일 대중강의교단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도론회에는 김형준 보건성 부상, 김성희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회장, 관계 부문 일군들과 메워드로스 벨레세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가족계획연맹대표단, 주요 국제기구대표부, 우리 나라에서 시업하고있는 적산자 및 적산회 국제연맹대표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백두산지구답사단 도착

로씨야련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백두산지구답사단이 24일 평壤에서 도착하였다.

유럽대외활동성 대표단이 떠났다

유럽대외활동성 대표단이 24일 평壤에서 떠났다.

프랑스실업계대표단 도착

프랑스실업계대표단이 24일 평壤에서 도착하였다.